

정승일 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 제2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개최



▲ 정승일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11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2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세일 한국가곡의 밤 개최

정승일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세일이엔에스(주) 회장)이 지난 11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2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세일 한국가곡의 밤은 김덕기(서울대 음대 교수)의 지휘와 프리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담당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악가 중 한 명인 소프라노 김영미를 비롯하여 소프라노 김은주, 테너 나승서·강무림, 바리톤 장유상·유주호, 제2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수상자인 소프라노 황수미·베이스 이승수가 출연하여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또한 올해 '제2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에서 입상한 창작가곡들이 초연됐다.

'세일 한국가곡의 밤'에서는 다른 가곡 공연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의 연주들이 선보였는데, 성악가들의 듀엣 앙상블 공연과 함께 국내 최정상 연주이자 최연소 서울대 교수로 발탁되어 화제가 되었던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바이올린과 관현악곡으로 새롭게 편곡된 가곡들을 연주해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승일 명예회장은 "세일 한국가곡의 밤은 잊혀져가는 우리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며 "세일문화재단은 한국가곡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일 명예회장은 음악예술의 발전과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성악가 발굴



▲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사들이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하여 '제2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을 관람한 후 정승일 명예회장과 함께 기념촬영


과 함께 잊혀져가는 한국 가곡의 우수성과 정겨움을 알리기 위해 지난 해부터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가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11회 메세나인상 수상

한편, 정승일 세일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11월 17일 한국메세나협회가 개최한 제11회 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 메세나인생(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가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정승일 세일문화재단 이사장이 '세일 한국가곡콩쿠르'를 개최해 한국 음악계를 이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매년 가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한국가곡의 밤'을 열어 성악가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등 한국 가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하여 메세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과 창작 활동을 하는 문화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와 문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정승일 세일문화재단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은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제11회 메세나대상에서 한국가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메세나인상을 수상했다.